다문화 사회를 위한 대학 교양 교육 필요성과 방향성 고찰

강준수 *

Ⅰ. 서론
Ⅱ. 다문화 공동체 특성과 대학 교양 교육
Ⅲ. 다문화 사회에 맞는 교양 교과 개편 필요성
Ⅳ. 맺음말: 상호이해와 수용의 자세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던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양상, 상호 문화 존중, 그리고 인식의 확장을 위한 대학 교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는 상호 이질성을 인정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 소통, 그리고 공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교통 통신 체계의 혁신, 그리고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서 각 국가 사이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 안양대학교 관광학과, 조교수, kangminsk@anyang.ac.kr

이주여성, 그리고 북한 탈북자 등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이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새로운 국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학 교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정체성의 혼란, 부모의 보살핌 결여, 그리고 공동체 소외로 인해서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은 상호 문화수용, 이질적 문화가치 존중,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이해와 관련된 대학 교양 교육의 강좌 개설과 커리큘럼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반영된 대학 교양 교육의 방향성은 향후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발전시키면서 통합적인 다문화 공동체 사회로 이끌어 갈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 사회, 대학 교양, 다문화 가정, 정체성 혼란, 문화 다양성

Ⅰ. 서론

현재 한국은 개방, 국제, 그리고 세계와의 긴밀한 교류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민족, 인종,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피부색, 언어, 그리고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접하는 상황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탈북민 등을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로운 공존의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제시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민족적 우월감, 자부심, 그리고 문화적 폐쇄성이 지배했었다. 이러한 과거 인식은 새롭게 우리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편견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다문화 구성원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문화 구성원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거나 국내 대학에 유학을 온 외국인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 미래 한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지도자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에서의 다문화 교양 교육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대학 교양 교육은 다문화 구성원이 지닌 문화 배경에 대한 자부심과 새롭게 편입되어 살아가는 문화 적응력이나 수용력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용력 향상은 관용, 포용, 그리고 차이의 인정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대학 교양 교육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 교양 교육은 이주민 자녀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시작된다. 기존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은 주로 노동력의 수입이라고 하는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에서 고립이나 소외된 노동자 계층으로서의 복지 대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었다.

현재 다문화 사회에서 국내 대학 교양 교육의 문제점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의 결여에 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다문화 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문화나 출신 배경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적 지식이나 이해 수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효용적 가치를 지닐 뿐 다문화 구성원으로서 "문화적 수용과 이해의 대상이라는 인식"(조원탁, 2020, 4)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 민족, 그리고 문화를 수용하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첨단 정보산업의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인간의 가치와 연관된 근본적 문제나 사상을 추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 행동과 판단에 질문을 제시하는 비판적 학문인 인문학이 관심의 대상"(공형조, 2022, 16)이 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이기심이 팽배한 사회에서 인간 가치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인문학은 중요한 수단이다. 기본적으로 인문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삶과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은 우리 시대에 정답을 제공하는 학문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흐름에 적응, 대응, 그리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학문이다. 인문학의 기능으로서 자아실현, 삶의 질적 향상 수단,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작동을 들 수 있다(공형조, 2022, 20).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인은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자신을 파악하고 자아실현을 통해서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아실현을 통해서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성은, 2007, 15). 대학의 교양 교육에서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교양에만 한정되기보다는 모든 학문 분야에 선행되는 전제이다. 명확한 교육 내용의 선정은 교육 과정, 교수 방법, 그리고 평가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전제는 인성, 교육 방향, 그리고 교육목적 등에 대한 문제로서 합의와 선정의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연지원, 2019, 21).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양은 교양 지식과 실용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교양인으로서 갖출 수 있는 소양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문학, 역사, 논리, 그리고 수학적인 지식 등을 포괄한다(유성은, 2007, 15). 후자는 현실 생활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 당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 법, 부동산, 그리고 요리 등과 같은 실용적 분야의 학문을 의미한다(연지원, 2019, 22).

현대 사회 교양 교육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이념과 사회현상의 측면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이 담겨 있다. 교양 교육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파악이나 인간 본성이 지닌 내적 능력의 함양을 핵심 가치로 한다(최미리, 2001, 11). 독일 미학 사상가인 쉴러(Johann Sciller)에 따르면 교양인은 도덕성, 감성, 통일성, 그리고 다양성을 겸비한 총체적 품성의 인간을 의미한다(이하준, 2018, 495). 교양인은 내면적 자유로움을 통해서 인간의 품격과 인성을 갖추고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아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시대에 맞는 다양성, 포용성,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공감 능력의 교양인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 교양 교육은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재 유형은 바른 인성을 포함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이다. 현재는 2022년 10월에 공시되는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 과정 개정은 교육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핵심역량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서 개설된 다문화 관련 강좌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을 지닌 학생들이 대상이다. 이것은 대학의 일반교육 과정에서 제시되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 통합적 다문화 교양 과정의 개설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모색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Ⅱ. 다문화 공동체 특성과 대학 교양 교육

문화는 인류가 속한 사회집단의 생활양식이며 총체적인 환경으로 정의될 수 있다(Geertz, 1995, 12). 문화개념은 1871년 영국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가 처음으로 정의 내린 것으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사랑, 규범, 그리고 관습 등을 포함하는 획득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Tylor, 2012, 13). 물론 현대 사회의 문화개념은 다양하고 복잡해서 특정한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 힘들다.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이나 교통체계의 발달, 그리고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빈번한 이동이 진행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다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이질적 문화가 공통의 제도권 내에서 상호교률 통해서 형성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서종남, 2010, 10).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국제결혼이 빈번해지고, 인력난의 부족으로 인해

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한국 사회를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다. 다문화 사회는 특정 국가나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종, 민족, 계급, 그리고 종교 등과 같이 복잡한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로서 평등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혜순, 2008, 36).

다문화 사회의 특징은 다양성과 특수성, 집단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들 수 있다(김혜숙, 2011, 23). 다문화 사회는 근대국가가 지향했던 동질성이나 단일성 개념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활발한 국제 교류와 교통 통신 체계의 발달로 인한 인적 자원의 이동이 빈번하면서 민족이나 인종적 다양성이 생기고 그들만의 특수한 문화가 유입된 새로운 개념이다. 집단적 갈등은 기존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이주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은 기존의 사회 구성 집단이 새로운 이주 집단을 향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의미한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로 유입된 계기는 1993년 시작되었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필두로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이주민 여성들이 증가하였다. 현재 한국 전체 인구 100명당 2명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서영석, 2017, 10).

대체로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족,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교육방식에서 오는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박주현, 2016, 18).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이질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민자 집단이라는 차별적 시선과 사회적 편견을 경험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다문화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환경적 배경을 갖고 성장한 학생들은 두 개 이상의 문화적 영향력을 지니고 생활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자신의 실질적 국적에 대한 심리적 혼란에서 비롯된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혼란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김도희 · 이경은, 2009, 78).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피부색과 민족을 접하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일이 되었다. 한국은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다문화 가정으로 국제결혼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북한의 탈북민 등과 같이 인종, 민족, 그리고 문화가 다른 외국인을 포함하는 가정이라고 지정하고 있다(법무실무연구회, 2010, 17).

한국 사회 초창기의 다문화 가정은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의 결혼을 시발점으로 1990년대 농촌사회 결혼 적령기를 놓친 농촌 총각 결혼 장려 운동의 명목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동남아시아 여성과 한국 농촌 총각과의 국제결혼이었다. 당시의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 남성과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주류라고 할 수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은 1980년대 후반에 취업 기피 직종이었던 제조, 광업, 그리고 건축 분야의 인력난 해소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필두로 1993년부터 본격적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탈북민으로 이루어진 새터민 가정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북한 식량난으로 인해서 탈북민들이 증가하면서 남한에 정착하게 된 이주민 가정이다.

<표 1> 다문화 가정 유형[1)]

다문화 가정	가족 구성
국제결혼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또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으로 구성
외국인 근로자	한국 남성과 외국 근로자 여성, 한국 여성과 외국 근로자 남성,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남녀로 구성
외국인 이주자	본국에서 결혼한 외국 근로자의 한국 이주
새터민(탈북민)	탈북민 출신 남성 또는 여성이 남한 사람과의 결혼으로 구성

다문화 사회란 언어, 종교, 관습, 국적,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 등과 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사회의 구성원 참여로 형성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윤예림, 2020, 2). 단일 민족 국가를 표방해왔던 한국 사회는 이

1) 백승주 · 이동준 · 최진용, 2010, 『다문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학지사.

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 공동체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모색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Multi Culturalism)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이 상호 접촉하면서 상호 가치, 정치, 그리고 제도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성이나 정도는 접촉 발생 정도와 연계해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 적응은 양 집단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쪽 집단이 또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변화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임학순, 2007, 44). 문화 적응의 범주는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그리고 주변화(Marginalization)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Berry, 1990, 216). 동화는 주로 이주민이 기존의 사회적 지배 가치에 일방적 접근 경향을 지닌다(이홍재, 2005, 221). 이주민들의 기존 사회 동화과정은 문화, 구조, 결혼, 정체성, 태도 수용, 행위 수용, 그리고 시민적 동화라고 하는 7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Gordon, 1964, 265). 외부 세계에서 기존 사회로 진입한 이주민 집단은 동화의 심화 정도에 따라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갈등 양상이 줄어들 수 있다(이홍재, 2005, 222). 오늘날 현대 사회가 다문화 사회개념과 보편적 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은 정보통신과 운송 수단의 급속한 발달에서 기인한다.

국적, 인종, 그리고 민족이 다양한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은 상호 차이를 수용하고 동등한 관계 형성과 함께 공동체적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에 속하게 된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가진 문제점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거나 상호 이해하는 차원의 개념보다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지녀온 단일 민족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으로만 작동한다

는 것이다(김현미, 2007, 103). 현재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보다는 이주민의 동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한건수, 2003, 149).

기존의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과 관련된 이데올로기 집착으로 인해서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배타적이었다. 전 세계는 지역적 경계가 무너지고 공동체적 구성체로서 나아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현상은 개방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향우 한국 사회가 이러한 다문화 공동체적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학 교양 교육의 커리큘럼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은 국내 결혼 이주 여성의 주요 출신국인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사회와 문화를 포함하면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역량의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타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대학 교양 교육 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교양 교육의 기원은 리버럴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이고 기초학문의 증진을 위해서 교양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백승수, 2018, 232). 리버럴아츠 교육이념의 핵심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하는 것이다(박병철, 2019, 163). 끊임없는 변화의 상황 속에서 기존의 교육이념만을 고수하는 것은 낡은 이념만을 주입하는 한계성을 갖는다. 또한 리버럴아츠의 교육이념은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다(손승남, 2017, 13). 리버럴아츠 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은 인간의 가치회복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에서 찾을 수 있다. 리버럴아츠 교육은 창의적 사고, 문제의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백승수, 2017, 15).

리버럴아츠 교육개념은 단순히 학문적인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들이 대학 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관계, 학점, 장학금, 그리고 취업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리버럴아츠 교육개념은 다양한 현실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강좌 개설을 유도하면서 현실적 문제해결

에 이바지하고자 한다(심보경, 2020, 158). 4차 산업혁명의 여파는 현대 사회에서 대학 교양 교육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대학 교양 교육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다(김태경, 2018, 21).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인격체 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형식적 틀에 맞는 일반적 교육과 좀 더 폭넓은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형식적 틀을 벗어난 자유 교육이 제시된다(윤유진, 2020, 311). 대학 교양 교육이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사회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학들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게 대학 교양 교육의 관점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고 지속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 교양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대학 교양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리버럴아츠 칼리지 개념의 대학 교양 교육은 단순한 지식 획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교양인 양성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이나 다문화 시대 진입은 대학 교양 교육이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교과 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양 교육은 다문화 이주 가정의 자녀나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 내용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문화 교양 교육은 일방적인 한국 문화 체험 활동 위주의 교육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문화 구성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의 대학 교양 교육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 소개를 벗어나 다문화 구성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의 수용, 이해,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상호 인정이라고 하는 포용성을 토대로 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Ⅲ. 다문화 사회에 맞는 교양 교과 개편 필요성

현대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사회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민족, 인종,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과거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에 심취하여 이질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존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성, 편견, 그리고 거부감을 유지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식적 확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교육 방향은 대학 교양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나 국내 가정의 학생들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상호이해와 존중의 태도로 다문화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물결, 국가 사이의 경계 해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물리적 거리의 약화, 그리고 자유로운 인적 이동의 증가는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구성원들의 존재를 낯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움으로 인식하게 한다. 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다문화 가정 출신이나 외국인 유학생이 공존하면서 문화와 의식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신속하게 제공되지만, 문화와 인식의 변화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현대 대학 교양 교육에서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현재의 대학 교양 교육은 기존의 품성, 인성,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교양인 육성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문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치열한 문제 제기 과정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와 해결책을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측면에서 탐구 필요성이 있다(문종길, 2015, 34). 이것은 인문학이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 확립에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문학이 지닌 이러한 기능은 인간 주체의 자기 형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양 교육의 중요성을 내포한다. 대학에서 교양 교육은 인간,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이성적 사유나 독립적 행동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심영섭, 2015, 12). 다시 말해서 교양 교육은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로운 학문 탐구를 통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양 교육이 지닌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편견의 배제는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학문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대학교육에서 교양은 전통적 가치나 익숙한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능력과 다양한 문화와 대상이 지닌 가치 수용과 포용하는 학문적 자세 고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문화와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단순한 교양인 육성을 넘어서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민족, 인종, 그리고 국가 출신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 확장이나 문화적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다문화정책이 담긴 대학의 교양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대학에 입학한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 결혼 이민 출신이거나 이주노동자인 부모 세대가 경제적 여건이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민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이나 성장 과정에서 언어 구사 능력의 부족 등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체성 혼란, 사회적 차별, 편견, 언어 구사 능력의 부족, 그리고 문화적 이질감 등을 들 수 있다(김현미, 2008, 11).

정체성의 혼란은 이주 부모의 문화와 한국 사회문화의 이질감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문화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문화가 차이를 지니면서 부

모와 자식 사이의 원활한 유대감 형성 결핍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차별은 피부색과 외모의 차이로 인한 동년배들의 소외와 고립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출신 대학생은 이러한 소외와 고립의 과정에서 대화 상대의 부족과 부모 세대와의 대화 단절로 인한 언어 구사 능력의 부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쇄신, 다양성의 수용,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교양 교육의 구조가 기초 영역, 배분 이수 영역, 전공기초영역 그리고 자유 선택적 일반교양 부문으로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백승수, 2017, 15).

인문, 사회, 그리고 자연 과학을 아우르는 기초학문 분야의 교양은 일반적 지식이나 보편적 이성을 다루고 있다(백승수, 2018, 231). 따라서 교양 학문 영역은 다문화와 다원화 사회의 학습자를 포괄하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선이나 변화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수자는 다문화 사회의 방향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실질적인 다문화 시대 교육의 인식적 확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학습 강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는 학생이어야 한다(이원석, 2021, 49).

다문화 시대 교양 지식은 단순히 인간 품성, 본질적 가치,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는 범위를 확장하여 다원적 가치 존중, 다양한 문화의 가치 이해, 상호 소통 능력의 함양, 문화적 포용성, 다문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 사고의 함양 등이 필요하다(서종남, 2010, 13). 기존의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탓에 다원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미흡했다. 이러한 성향은 다양한 문화가 가치를 이해하기보다는 차이를 배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했다.

이질적 문화에 대한 배척은 공감 능력이나 문화적 포용성의 부족을 드러냈다.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시대를 주도하는 보편적 인재 양성의 의무가 있는 대학에서 교양 교육은 시대를 반영한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2> 다문화 시대 교양 교육 개선사항[2)]

	개선 내용
1	다원적 가치 함양
2	다양한 문화가치 이해 함양
3	이질적 문화에 대한 원활한 공감 능력 함양
4	다문화 포용성 함양
5	다문화 시대의 창의적 사고 함양

다문화 시대 교양 교육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균형적 인간 양성이라고 하는 교육의 목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 시대 교양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과 존중 태도의 함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시대 교양 교육의 목표 수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다양한 다문화 체험과 지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은 오랜 시간 단일민족 공동체에 익숙한 분위기에서 경험하는 이질적 문화에 대한 거부감, 노동 시장의 분할에 따른 계층 사이의 갈등, 인종과 종교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갈등 등이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호 이해, 소통, 그리고 존중을 통해서 다문화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다문화적 가치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형성에 대학의 교양 교육은 주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는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출산율 저하, 그리고 대외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재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고 출산율에도 기여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의 핵심 가치는 상호 차이를 수용하고 긴밀한 대화, 소통, 그리고 교감을 통해서 차이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식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교양 교육의 개편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기

2) 서종남, 2010,『다문화교육』, 학지사, p. 13.

본적으로 교육제도를 재구성하는 것이고 성별, 언어, 사회계층, 인종, 그리고 민족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Banks, 1993, 17).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이 지닌 언어적이고 학문적인 욕구에 부합되는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Suzuki, 1984, 70).

다문화 교육이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와 상호 의존성이다. 다문화 교육의 특징은 개인과 사회가 지닌 타 문화와의 상호 연결성 인식, 다양한 문화집단 내에서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왜곡과 편견의 최소화를 들 수 있다(김선미 · 김영순, 2008, 54-59). 개인과 사회가 지닌 타 문화와의 상호 연결성 인식은 종교, 계층, 종교, 인종, 그리고 성별 등이 갖는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차이의 인정을 통해서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상호 소통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학 교양 교육의 개편과 방향성 제고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은 다문화 가정 출신의 대학생들이 부모의 문화적 배경과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 요양 교육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정체성 확립에 관한 문제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화집단 내에서의 정체성 확립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집단들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벗어나 확립에 이르게 해주는 교육 행위를 의미한다.

왜곡과 편견의 최소화는 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시선으로 다름을 파악하는 성향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잘못된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할 수 있는 인식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중, 불평등과 편견에 대한 인식을 통한 쇄신 의지와 사회정의 실현과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다(Coelho, 1998, 36). 따라서 대학 교양 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지침과 방향성을 토대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상호이해와 수용의 자세

세계화는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기회, 선택의 자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족, 계층, 그리고 국가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도 발생시켰다. 이러한 갈등의 예로서 빈번한 인적 교류 및 이동에 따른 다문화 현상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을 지향해왔던 한국 사회는 이질적 문화와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과 갈등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아이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에서 굳건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 교양 교육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노동 이민자 가정의 학생,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결혼 이주민 가정의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대학의 교양 교육에 대한 존재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현실에서 필요한 학문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양 교육은 기초학문 분야를 다루면서 비판적 사고, 사고의 확장, 그리고 행동 판단이나 자아 성찰 수행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발전적 사회 진입을 위한 토대가 된다. 다시 말해서, 교양 교육은 단순히 인간의 본질, 품성, 그리고 인성을 갖춘 교양인의 함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서 진보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정 출신 대학생들의 가치관, 자아정체성 혼란, 그리고 우리 사회에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로 연계될 수 있는 교양 교육 내용의 확장이 필요하다. 대학의 교양 교육은 단순히 교양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합리적 행동, 그리고 자아실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함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이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 교육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서 원활한 상호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 구분, 갈등, 그리고 대립을 넘어서 상호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문화 공동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 진입은 계층 간의 갈등 가능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이나 고령화 시대에 인구 유입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한 개 이상의 문화를 습득하고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국제화 인재의 양성이라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 대학의 교양 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 인식,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내용과 체험 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과 커리큘럼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 교양 교육이 중요한 것은 대학이라는 교육 체제가 사회 준비생들을 교육하는 전초기지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시대 대학의 교양 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우리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의 강요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편견을 해소하고 인종차별, 문화, 그리고 종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인식하고 진지한 논의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의 확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공형조, 2022,『굿모닝 인문학』, 레몬북스.

김도희 · 이경은, 2009,「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양육 효능감에 관한 경로분석 연구」,『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한국가족관계학회, 77-98.

김선미 · 김영순, 2008,『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김태경. 2018,「21세기 대학의 역할과 리버럴아츠칼리지— 아키타 국제교양대학이라는 물음」,『비교일본학』 44, 한양대학교 일본학 국제비교연구소, 21-38.

김현미, 2008,『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김혜숙, 2011,『생활주제와 통합된 유아다문화 교육의이론과 실제』, 양서원.

김혜순, 2008,「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한국사회학』 42-2, 한국사회학회, 36-71.

문종길, 2015,『더 나은 삶을 위한 성찰의 힘 인문학(윤리와 사상)』, 책과나무.

박병철, 2019,「리버럴아츠 교육과 한국의 교양교육」,『교양교육연구』 13-1, 한국교양교육학회, 163-180.

박주현, 2016,『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실천』, 창지사.

법무실무연구회, 2010,『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도우미』, 예스폼.

백승수, 2017,「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교양교육연구』 11-2, 한국교양교육학회, 13-51.

백승수, 2018,「국립 리버럴 아츠 칼리지 설립의 교육적 타당성 고찰」,『교양교육연구』 12-5, 한국교양교육학회, 231-250.

백승주 · 이동준 · 최진용, 2010,『다문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학지사.

서영석, 2017,『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아픔과 분투』, 집문당.

서종남, 2010,『다문화교육』, 학지사.

손승남, 2017,「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K-LAC)의 가능성 탐색」,『교양교육연구』, 11-1, 한국교양교육학회, 13-37.

심보경, 2020,「대학 교양교육에서 리버럴아츠 강좌 운영의 의의 – 삶의 큰 질문: 인생(B.Q.L:LIFE) 강의를 중심으로」,『언어학연구』 55, 157-177.

심영섭, 2015,『인문학의 성찰이 없는 경제학은 허망하다』, 책과나무.

유성은, 2007,『명품인생을 창조하는 목표관리와 자아실현』, 중앙경제평론사.

윤예림, 2020,『다문화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풀빛.
윤유진. 2020.「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대학의 교양교육의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교양교육연구』14-2, 한국교양교육학회, 311-325.
이원석, 2021,「<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회고와 전망」.『리버럴아츠』1-1, 37-85.
이하준, 2018,「교양예술교육의 목적과 교육과정에 대한 재사유-실러의 미적교육론의 관점을 중심으로」,『동서철학연구』90, 한국동서철학회, 491-515.
이흥재, 2005,『문화예술정책론』, 박영사.
임학순, 2007,『문화예술교육사업과 파트너십』, 북코리아.
조원탁, 2020,『다문화 사회와 다양성』, 양서원.
최미리, 2001,『미국과 한국 대학의 교양 교육의 비교』, 양서원.
한건수, 2003,『세계화와 문화 변동: 탈영토와, 초문화와 그리고 크레올화, 세계화와 사회변동』, 강원대학교 출판부
Banks, James, 2002,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New York: Allyn and bacon.
Berry, John. Widdup,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J. J. Berma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Cross-cultural perspective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234.
Coelho, Elizabeth, 1998, *Teaching and learning in multicultural schools*, UK: Multilingual Matters.
Geertz, Clifford, 1995, *After the Fact: Two Countries, Four Decades, One Anthropologis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Gordon, Milton,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uzuki, BOB, 1984, Curriculum transform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 and Urbansociety* 16-3, 294-322.
Tylor, Edward Burnett, 2012, *Primitive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for a Multicultural Society

Kang, Junsoo
(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detailed discussion on the various aspects in Korean society, which has long been obsessed with the mono-ethnic ideology, as it enters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respect for mutual cultures, and the necessity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to expand awareness. Basically,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 must be an effort to acknowledge each other's heterogeneity and to understand, communicate, and empathize with each other's cultures. In order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adapt well to university life and become healthy members of society, liberal arts education at universiti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ctively migrating between countr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novation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and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 As South Korean society has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migration of people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such as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North Korean defectors, the need fo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to form a new national community is raised. This is becaus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ve difficulties adjusting to Korean society due to identity confusion, lack of parental care, and alienation from

the community. Therefore, Korea, which constitutes a multicultural community, needs to open college liberal arts courses and secure curriculum related to mutual cultural acceptance, respect for intellectual cultural values, and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The direction of college liberal arts education reflecting the expansion of awareness of this multicultural community will lead to an integrated multicultural community society while developing Korea's cultural diversity in the future.

Keyword ● multicultural society, university liberal arts, multicultural families, identity confusion, cultural diversity

▌논문투고일 : 2022. 6. 12. ▌심사완료일 : 2022. 6. 18. ▌게재확정일 : 2022. 6. 26.